



윗줄 좌로부터 이봉주씨, 정희상계장, 장상철사업과장, 성영덕주임, 이인호씨
 밑줄 좌로부터 김행수주임, 박승성계장, 최진명씨



경기도지부 사업과

주인정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8 시50분! 오늘도 아침 청소를 마치고 한명 두명 자리에 앉는다.
 자신의 활일을 간단히 과장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면 정각 9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사업장에 전화거는 소리 타이핑 치는 소리…… 조희때의 조용했던 분위기는 어느덧 소음으로 변해 간다.

사업과에 긍지를 심어 주고 친구에게 대화 하듯이 빈틈이 없고 실수 없이 꼼꼼한 성격으로 조용히 과를 이끌어 가시는 장상철 과장님. 업무에 실수가 있어도 항상 부드럽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이끌어 주신다.
 그러나 요조심, 같은 실수가 세번 이상 일 때는 각오 해야한다.
 박 승섭 계장, 6년간을 경기도 지부에서

만 근무해 발이 넓은 것은 그만 두더라도
사업추진에서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을 적
척 해결 해가는 우리 과의 인사게 이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매에 느물느물함은
엿보이지만, 한길로 들어서서 충실히 삶을
살아 가는 겨울나무 같은 강인한 의지를 갖
고 있다.

벚꽃이 얼굴에 활짝 핀 정 회상 계장!
신혼의 때를 못 벗어나서 인지 아침마다 표정
이 매일 다르다.

어제는 싸우고, 오늘은 화해하고, 집사람
을 휘어 잡기 위해 무던히 애쓰지만 아직 효
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한 반복의 과정에서 애정의 벽을 더
욱 두껍게 쌓아 가는 것이 아닐까? 끊임없
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 학구적으로 탐구하
는 자세를 우리들은 배워가고 있는지 모르
겠다.

일에 대한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묵묵히
자신에 업무에 몰두 하는 김 행수 주임. 누
구 못지 않는 열의를 갖고 어려운 일은 도
맡아서 해나간다.

점심때에 식사하러 집에 자전거를 타고 가
는 뒷 모습에서 소박한 삶을 엿볼 수가 있
다.

키는 작지만 야무짐으로 뭉친 이 인호 서
기. 강원도 지부에서 4여년간 기생충 업무
를 맡아보아 일가견을 갖고 있다. 감자바위
의 구수한 소박함과 인친의 잔물 같은 냄새
가 어울어져 있지만, 가정에서는 두 아이와
안사람과 오붓한 시간을 더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것을 보면 타향에 내려와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안스러움이 깃
들어 있기도 하다.

퇴근해서는 목동으로 사무실에서는 막내
로 여기 저기서 이 봉주씨! 이 봉주씨! 불
러도 짜증냄 없이 밝은 표정으로 굶은 일을
묵묵히 해 나간다.

한명뿐인 총각으로 서무과에 「Miss」들이
중매를 서준다고 하지만, 중매의 뜻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같고……

사업추진 요원인 최 진명씨!

항상 외동딸인 “아름”이의 사진을 갖고
다니며, 수시로 보는 일등 아빠!

사회에 초년생이라는 자세로 항상 일에 열
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한 아기의 엄마이지만
남자들만 있는 과에서 꽃이라고 생각할까?
숙녀 다운 생각으로 과 직원들을 위하여 사
업추진을 위한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최대
한으로 도움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올해도 인화단결 아래 “주인정신 과 책임
의식을 갖고 일하자”라는 국장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
리과 직원일동은 국민건강을 위해 일익을
담당 하고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하면된다”
는 굳은 신념아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각
오로 일선에서 자신의 개발과 함께 토끼처럼
부지런히 뛰어가는 한해가 되겠다.

(필자=경기도지부 성영덕 사업주임)

